



2025 임실청소년축제-임실교육한마당 열려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임실군청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교육축제 '2025 임실청소년축제-임실교육한마당'을 지난달 31일 임실군민체육회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일원에서 개최했다.

임실에서 키운 꿈, 지역을 넘어 세계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치고 진로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초·중학교 학생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예술마당',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직업체험을 진행하는 '진로체험마당', 청소년 진로직업체험동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임실학생의회의 정책홍보, 대학 입학사정관, 대입지원단, 선배멘토링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직업체험, 유관기관 등 70여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임실=전충영 기자



도-공무직노조, 농촌사랑 노·사 한마음 일손돕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이 지난 달 31일 임주군 고산면의 양파·마늘 농가를 찾아 가을철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오광철 노조위원장과 김충필 자치행정국장 을 비롯한 노·사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해 양파·마늘 모종심기와 비닐 제거 등 농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주는 "가을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직접 나와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광철 위원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금동, 삼성스토어 공설시장점 후원 '온정'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지난 10월 30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실천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 6가구를 발굴하고, 삼성스토어 공설시장점의 후원으로 전기매트(싱글, 환가액90만원)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통장님들의 추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낸 결과이며, 민관이 함께 실천한 따뜻한 복지의 현장이며, 후원에 참여한 삼성스토어 공설시장점(대표 김경찬)은 최근 기존 매장을 인수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곳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첫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출발을 알렸다. 김경찬 대표는 "앞으로도 금동과 함께 나눔을 이어가며 이웃에게 힘이 되는 공간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수료식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청하면 제삼마을을 시작으로 금산면 평지마을까지 최근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을 끝으로 2025년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이 마무리 됐다.

이번 치매예방교실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성군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 64개소에서 확대 운영했으며, 경로인지장애 진단자를 발굴하여 인지강화교실과 연계함으로써 조기 치매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인지훈련 교재를 활용한 두뇌활동 프로그램과 원예, 공예, 요리 등 다양한 체험형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치매예방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치매예방교실 참여자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 즐거웠고 마음이 밝아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성주 김제시장은 "치매는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치매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사회복지사대회로 '원팀 전북복지' 다짐

창립 50주년 기념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사대회' 개최... 유공자 표창·기부금 전달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사회복지사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도민을 위한 돌봄사회 실현과 전주윌립의 성공적 유치를 함께 염원하며, 사회복지사들이 '하나된 팀(One Team)'으로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의 대회사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지방의회 복지대상 시상 △김관영 도지사 축하 △50주년 기념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 해 동안



복지현장에서 헌신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도지사 표창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으며, 참석자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해 현장의 사기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문화공연에서는 신연아 밴드, 호원대 K-POP학과 댄스팀, 가수 하동균 등이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사회복지사들의 재충전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했다. 현장에는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지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과 연대의식이 더욱 돈독해졌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등록 사회복지사는 약 7만 8천여 명, 이 중 전북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은 6만 9천여 명에 달한다. /이만호 기자

'제31회 정읍시민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4000여 명의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정읍에서 펼쳐졌다.

정읍시는 지난 1일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에서 이학수 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의장 등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및 읍면동 선수단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읍시민의 날 및 2025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읍시립국악단과 정읍 출신 국악인 신동재, 태권도공연단 '씨울아비'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정읍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정읍시민의 장과 지역발전 유공 시민에 대한 감사패 수여, 자랑스런 체육인상 시상이 진행됐다.

올해 시민의 장 수상자로는 애향봉사장에 김성순(정읍여성의용소방대장) 씨, 농산업경쟁장에 이현주(참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 씨, 명예시민의장에 조연옥(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 부회장) 씨가 선정됐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의 장을 수상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기념사에서 "정읍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시민이며, 시민 중심·옴통 정읍 실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회사와 축사가 이어졌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정읍시민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기념식 이후 열린 2025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 남원시에 성금 기탁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최고위 과정 제11대 총동문회(회장 전길수)에서 지난 10월 31일 남원시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4천만 원 상당의 성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현금 기탁이 아닌 총동문회가 모금한 재원을 주거 환경 개선 공사비로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전길수 제12대 총동문회장, 장덕호 기획총장, 신민재 사무총장, 유주호 행정지원실장, 원대원 원우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번 기부는 최고위 과정 제12대 총동문회 회원들이 총 4천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고 최고위 과정 14기 원우인 원대원이 대표로 있는 원우기업에서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남원시 내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정읍시의회 내장권 관광 발전 연구회, 최종보고회

정읍시의회의(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내장권 관광 발전 연구회'(대표 이상길)가 최근 내장산 일대의 사계절 관광거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내장권 관광 발전 연구회는 이상길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승기, 오병제, 김석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부터 내장권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의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시각을 반영한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내장호 수변공간 활용 △문화·생태·레저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내장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전략을 논의하였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현재 노후 주택 철거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으며, 완공 후에는 남원시와 총동문회,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입주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장학문화재단, 정주고서 'JB인문학 강좌'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후원으로 운영되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지난달 31일 정읍 정주고등학교에서 '2025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섰다.

이번 강좌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통찰과 기술 변화 이해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맹성현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다가오는 AGI시대, 우리 뭘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인문학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강좌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고민하고, 기술과 인문학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연에 참여한 한 학생은 "AG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음악으로 하나되는 진안군민 '평화 음악회' 성료

'평화와 화합을 위한 진안군민 평화 음악회'가 지난 31일 원불교 좌포교당에서 군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평화 음악회는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 회주 원행 큰스님, 진안군 기독교 연합회 백귀덕 목사님, 원불교 진안지구장 오진경 교무님, 천주교 전주교구 진안성당 마태오 신부님 등 4대종단이 모두 참여하여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종단과의 논의를 통해 열리게 된 이번 공연은 중창단·통기타·색소폰 등 각 종교를 대표한 공연자의 다양한 무대 및 가수 박오뜸, 테너 김재명의 음악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 천주교 전주교구 진안성당의 합창과 함께 모든 종교 지도자와 군민이 '사랑으로'를 합창하여 서로 다른 종교가 노래로 하나가 되어 하모니를 이루는 감동의 무대로 마무리 하였다.

진안군수는 "이름다운 원불교 좌포교당에 여러분과 함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진경 교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안성서 '어르신 가족사랑 그라운드골프대회'

지난 1일 무주군 안성면 체육공원에서 '2025년 어르신 가족사랑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전북·무주그라운드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을 비롯한 편홍의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 박천석 전북그라운드협회장, 공선화 무주그라운드협회장 등 주요 인사와 정국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7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5백여 명의 선수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인 및 단체 부문에서 경기를 펼치며 실력을 겨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회 무주 반딧불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제1회 무주 반딧불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2일 부남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무주군과 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파크골프 동호회 육성과 생활체육 증진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 선수로 참가한 2백여 명의 동호인들은 개인전을 통해 실력을 겨루었으며 오는 9월에는 클럽대항전으로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한편, 라인댄스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강계수 무주군파크골프협회 회장을 비롯한 선수 등 3백여 명이 함께 해 파크골프 발전과 선수들 건강을 기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동호인들의 열망을 담아 경기하기 좋게 마련된 부남 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청소년상담센터, 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개월 동안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남원하늘중학교, 용북중학교, 원천초등학교 등 4개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과도한 미디어 이용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자기 통제력을 길러 바람직한 디지털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 조절 능력을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